

■ 미용 의학 크리닉 칼럼

촉촉하면서 반짝 반짝 빛나는 물광피부 갖고 싶다고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이 반짝 반짝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뭘 바른 거야? 홀로 반짝이는 비결이 뭐지?"라며 집에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얼굴팩을 하고 화장품을 열심히 발라본다. 그러나 친구처럼 반짝이지를 않는다며 "어떻게 하면 반짝반짝—피부가 빛나요?"라고 문의하신다. 그 이유는 화장품과 얼굴팩은 피부의 표피층을 관리해 주는 것이며 피부의 진피층까지 관리하는 힘들기 때문이다. 계속 반짝이는 피부를 갖고 싶다면 진피층까지 재생 및 수분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진피층부터 촉촉하게 차오름이 없다면 겉피부는 절대로 빛나지 않는다.

■ 속피부에서 '차오름 현상' 있어야 겉피부 빛나게 한다.

지난 칼럼(12/19/2022참조)에서 겉피부와 속피부의 수분의 차이와 폴라젠 & 엘라스틴 & 무코다당류에 대해 설명했듯이 속피부인 진피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진피에서 수분감이 떨어지면 당연히 겉피부는 푸석하고 윤기 없는 피부가 된다. 진피에서 가득 채워지고 차오르면, 겉피부까지 촉촉하게 되어 반짝이는 피부 결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진피에서 표피까지 차오름 현상을 주는 성분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시술을 하는 걸까?

■ 진피에 직접 주입하는 '스킨부스터 (Skin+Booster)' 시술

진피에서 '차오름 현상'을 주기 위해서는 인젝터로 진피층까지 직접 영양을 넣어 주어야 한다. 확실하게 필요 성분을 직접 넣어주는 시술이 '스킨부스터(Skin Booster)' 시술이다. Skin과 Booster의 합성어로 피부를 건강하게 재생시키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피부 촉진제이다. 현대 의학과 피부과학의 발달로 좋은 피부 촉진 제품들이 많이 있다.

■ 스킨 타입과 스킨 컨디션 분석 후 부스터 제품 선택

스킨부스터 제품들은 수분, 재생, 영양,

미백의 초점으로 나눈다. 공통적으로 주름 개선, 피부톤 개선 등의 복합적인 피부 미용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성분에 따라 구분하는 이유는 피부 상태에 적합한 부스터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성피부나 여드름 피부에 고농축 재생 및 영양 성분을 진피에 직접 투입하면 오히려 피부 염증이 심해지고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킨타입과 현재의 스킨 컨디션을 파악하여 필요한 성분을 선택하여 주입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 스킨부스터 종류와 효과

물광주사, 아기연어주사, 리주란힐러, 샬넬주사, 엑소좀 등 여러 이름들로 다양하게 있다. 모든 제품에는 보습, 재생, 미백, 영양은 공통적인 효과를 주지만, 주요 핵심 성분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효과를 주는 스킨부스터 제품을 선택 결정해야 한다. 반짝반짝 빛나고 촉촉한 피부를 원한다면 물광주사라고 칭하는 HA물광주사, 동안피부를 만들고 싶다면 아기주사라고 칭하는 PDRN연어주사, 예민하고 얇은 피부라면 피부장벽을 높여주는 힐링주사인 리주란 힐러, 피부가 건조하고 칙칙하다면 샬넬주사, 유해 환경으로 손상 받은 피부와 노화 피부에는 재생에 탁월한 줄기세포 배양액 엑소좀을 권한다. 기미로 인해 고생하는 피부에는 엑소좀과 글루타치온 미백주사로 효과를 볼 수 있다. 1회 시술로도 효과를 느끼지만 피부 상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꾸준히 시술 받기를 권장하고 있다.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 촉촉한 피부, 정돈된 피부결, 아기처럼 탱탱한 피부를 원한다면 피부 속 피부 진피까지 충족시키는 스킨부스터 시술로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 보자

Dr. K Medi Spa
 한의박사 김은희 원장
 PhD, DAc, MS, LAc,
 (714) 204-6652



■ 교육

대학들, SAT 제출 의무화 복귀할 듯 ... "저소득층에 불리"



▲ 다트머스대학 다트머스 홀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국 대학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다시 대학입학자격시험(SAT)과 대학 입학학력고사(ACT) 제출을 의무화 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아이비리그 소속인 다트머스대가 내년 신입생부터 SAT와 ACT 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상의 이유로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이 늘었다. 특히 다트머스대를 비롯해 하버드대 등 명문 사립대들이 SAT 등 시험 점수 대신 자기소개서와 고등학교 성적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다른 대학의 입학 사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SAT 점수가 다른 학생보다 낮더라도 고등학교 성적이 높고, 인종이나 경제 측면에서 배려 대상인 수험생이 입학에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SAT나 ACT는 고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이다.

그러나 다트머스대는 지난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저소득층 수험생의 입학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최상위권 점수가 아닐 경우 시험 점수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 수험생이 많았지만, 불합격자들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낮은 점수라도 첨부했다면 합격했을 학생 수가 수백 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시온 바일록 다트머스대 총장은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훈련하는 것"이라며 "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 결정은 이 같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트머스대의 조사와 제도 변경은 향후 다른 미국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공과대(MIT)와 조지타운대 등도 SAT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비신청)/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